

전북 전진우, K리그1 9라운드 MVP

프로축구 K리그를 총괄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1 전북현대 전진우가 '하나은행 K리그1 2025' 9라운드 MVP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전진우는 지난 20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과 대구FC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전북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전진우는 전반 4분 김진규의 크로스를 왼발로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기록했고, 전반 38분에는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성공시키며 맹활약했다.

K리그1 9라운드 베스트 팀 역시 전북이다.

전북은 라운드 MVP 전진우, 두 경기 연속골을 터뜨린 콤파노의 활약을 앞세워 승리를 거뒀고, 리그 순위를 3위까지 끌어올렸다.

K리그1 9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19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FC안양과 수원FC의 경기다.

이날 안양은 야고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수원FC 싸바이 전반 38분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후반 3분 안양 모파가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는 득점을 기록했고, 후반 37분 안양 마테우스가 썩어골을 넣으며 경기는 안양의 3-1 승리로 막

대구FC와 경기서 멀티골로 팀 3-1 승리 이끌어

K리그 8라운드 MVP는 수원삼성 브루노 실바



전북현대 전진우.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을 내렸다.

K리그2 8라운드 MVP는 수원삼성의 브루노 실바가 차지했다.

브루노 실바는 19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과 화성FC의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수원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브루노 실바는 전반 35분 이기제의

크로스를 강력한 헤더로 연결하며 득점을 터뜨렸고, 전반 추가시간 날카로운 크로스로 세라핌의 득점을 도우며 활약했다.

K리그2 8라운드 베스트 매치 또한 수원과 화성의 경기였다.

이날 수원은 전반 28분 일류첸코, 전반 35분 브루노 실바, 전반 추가시간

세라핌이 각각 연속골을 터뜨리며 일찌감치 앞서갔고, 화성 박준서가 후반 13분 추격골을 터뜨렸지만 수원이 리드를 굳게 지키며 경기는 수원의 3-1 승리로 끝났다.

수원은 득점을 기록한 외국인 공격수들과 함께 도움을 올린 이기제, 이건희 등 다양한 포지션의 선수들이 고르게 활약하며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고, K리그2 8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선정됐다.

K리그 라운드 베스트11 및 MVP는 한국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회 산하 기술연구그룹(TSG)의 정량, 정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매 라운드 K리그 경기에 배정된 TSG위원은 각각 해당 경기의 베스트 11과 MOM(Man Of the Match)을 선정한다.

이후 TSG 경기평가회의를 열어 경기별 베스트11에 선정된 선수들을 대상으로 TSG위원 평점과 의견, K리그 공식 부가 데이터 업체 '비프로' 평점을 종합해 해당 라운드의 K리그1, 2 베스트11을 최종 결정한다.

라운드 MVP는 각 경기의 MOM을 후보군으로 정한 뒤, 베스트11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정한다.

/뉴시스



이탈리아 코르티나 담페초에서 열린 2025 세계주니어컬링선수권대회에 우승을 차지한 전북특별자치도청 여자컬링팀이 기뻐하고 있다.

“윤리센터 결정 존중… 다소 아쉬운 부분 있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탁구협회장 시절 징계 요청받은 것과 관련
“체육인들이 부정적인 이슈에 노출되지 않는 것에 초점 맞출 것”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인센티브 부당 지급 등의 이유로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사진)이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유승민 회장은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실실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제2차 이사회에 앞서 “나와 탁구협회 임직원을 둘러싼 여러 문제가 제기됐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 결정문을 발표했다. 스포츠인으로서 이 결정에 존중한다. 체육인들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윤리센터는 지난 14일 탁구협회 정관상에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인센티브를 신청해 지급받은 행위는 명백히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고, 권한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 사건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해 당시 탁구협회장이었던 유 회장에 대한 징계를 요



구했다. 지난 1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당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는 유 회장이 탁구협회장 시절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을 지적했고, 2020 도쿄 올림픽 탁구 국가대표 선발 때 선수 바뀔까봐 걱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의혹이 제기됐다.

윤리센터는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로 추천된 선수를 선발하지 않고, 다른 선수로 바꾼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기관 경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윤리센터는 지난 18일 유 회장을 비롯해 김택수 인천

국가대표선수총장, 현정화 탁구협회 부회장, 서민성 한국초등학교탁구연맹 부회장 등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결정문을 탁구협회에 보냈다.

또한 김택수 선수총장과 이미 탁구협회를 퇴사한 정해전 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도 동시에 진행했다.

유 회장은 “나뿐 아니라 종목 단체장들이 비슷한 경험을 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종목 단체장 간담회에서 임원 보수와 마케팅 관련 규정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나왔을 때 모두 동의했다”며 “윤리센터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향후 준비를 통해 나를 포함한 체육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육인들이 부정적인 이슈에 노출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부끄럽게 탁구협회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전북 축구협회장배
시군대학 대회 성료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2일, 13일, 19일 3일간 김제시 축구전용구장에서 진행된 '제9회 전북특별자치도 축구협회장배 시군대학 축구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축구협회(회장 서강일)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축구협회와 김제시축구협회(회장 허남근)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축구동호인들이 모여 축구를 통한 우정과 열정을 나누는 뜻깊은 무대로 펼쳐졌으며, 9회 연속 김제시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총 49개팀 2,000여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각 팀들은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대회 결과 30대부는 정음시, 40대부는 군산시, 50대·60대·70대·여성부는 전주시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김제=박노태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자름길

전북자치도청 女컬링 세계 정상에 우뚝 서다

2025 세계주니어선수권 우승… 강호 독일 8-2 이겨

전북특별자치도 여자컬링팀이 이탈리아 코르티나 담페초에서 열린 2025 세계주니어컬링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강호 독일을 8-2로 꺾고, 대한민국 컬링 역사상 첫 세계주니어선수권 우승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10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전북 여자컬링팀은 예선부터 눈부신 경기력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정교한 샷과 침착한 전략 운영으로 예선과 토너먼트를 거치며 준결승에서 스웨덴과 치열한 접전 끝에 7-6으로 승리해 결승에 올랐으며, 결승전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독일을 상대로 완승했다.

이 승리는 대한민국 컬링 역사상 최초 세계주니어선수권 우승이라는 점

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그동안 세계 무대에서 아쉬운 성적을 거두던 한국 주니어 컬링은 이번 우승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과 도약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선수단에 아낌없는 찬사와 축하를 전하며 이번 우승은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과 도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도민들의 뜨거운 응원이 함께 만든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북체육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컬링팀은 이번 우승을 계기로 다가오는 국제대회 및 전국 주요 대회에서도 활약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